



사회 > 교육

# '칸트는 AI를 어떻게 생각할까'...중앙대 AI인문학 국제 학술대회 진행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2-07-26 09:36 송고



(중앙대 제공) © 뉴스1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지난 22~23일 '인공지능인문학 국제학술대회 ICAIH 2022'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5회를 맞은 인공지능인문학 국제학술대회는 '칸트는 인공지능(AI)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주제로 열렸다.

학술대회 기조강연은 디터 쉘네커 독일 지겐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쉘네커 교수는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가 발간한 '칸트와 인공지능(Kant and Artificial Intelligence)'의 대표저자다.

이어 또 다른 저자 5명과 칸트철학 연구자 5명은 각각 발표와 토론·서평 등을 선보였다.

'언론이 AI를 다루는 몇 가지 방식'을 주제로 특별주제 세미나도 열렸다. AI 보

도 전문 언론인 7명과 학계 전문가 3명이 모여 언론이 AI를 다뤄 온 역사, 앞으로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전문가와 연구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인문콘텐츠연구소는 향후 융합학문으로써 '인공지능인문학'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연구역량을 길러나갈 계획이다.

이찬규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인공지능은 연구 분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지능, 행동, 사회 구조 등 폭넓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간이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제를 넘나드는 탐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